

신앙은 마음의 기울기가 결정한다

(사도행전 17:5-15)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라는 대조적인 두 도시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마음의 기울기'라는 영적 진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마케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반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인 베뢰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견이 없고 순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가지에 자극을 받아 조직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시가지를 누비며 바울 일행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믿은 지 얼마 안 된 야손과 형제들을 관원들 앞에 끌고 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라는 왕을 따른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폭력배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는 거친 자들이었기에, 바울 일행은 밤중에 곧바로 베뢰아로 매우 급하게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밤에'와 '곧'이라는 두 단어는 피신하는 이들과 피신시키는 이들 모두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실감 나게 보여줍니다.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 그리고 동족을 향한 환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면 영혼이 찢기고 방황하며 신앙의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영적으로 지쳐 좌절해 있을 즈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뢰아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큰 위로와 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전한 말씀보다 베뢰아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먼저 소개할 만큼 그들의 훌륭한 성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치실 때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의 집을 찾아

안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도 하나님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수준을 넘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안식이 되어주는 삶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베뢰아에서 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경에서 '더 신사적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서 '고상하다'라고 표현된 이 성품은 두 가지 심오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상하고 신사적이라는 것은 내면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반응을 먼저 꺼내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완벽하게 선하거나 악한 사람은 없으므로, 진정으로 신사적인 사람은 어떠한 불쾌하고 불친절한 사람이나 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면의 부정적인 반응을 접어두고 친절과 선함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신사적이지 못한 이들은 불행한 일만 골라서 말하고 나쁜 것에 나쁜 것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까지 불쾌하게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아서, 고상한 사람은 이를 그냥 흘려보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을 붙잡아 마음의 장부에 뽁뽁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언급하고 마음속에 악한 장부를 남기는 것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며, 진짜 믿음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좋은 반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고상하고 신사적이라는 뜻은 삶의 방향성과 경향성, 즉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기울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함은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그 방향이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공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실패와 불편한 환경 역시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안에서 디자인되고 배치된 것입니다. 이는 주방장에게 메뉴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 요리에 자신의

입맛을 맞추는 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셰프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때로는 쓰게, 때로는 달게, 때로는 싱겁게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최고의 셰프를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주님께 물으며, 슬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표면적인 죄의 크기가 아니라 중심에 흐르는 마음의 기울기에 있었으며, 사울은 사람과 권력만 의식했으나 다윗은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외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가보다, 중심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기울어져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비록 현재의 위치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방향만 올바르게만 반드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기차처럼,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생라함이나 돌아온 탕자처럼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렵돈이 가치 있었던 이유 역시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울기가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위치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어떤 순간이나 쓰러지는 자리에서조차 주의 거룩한 성전과 십자가 앞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참된 신앙이란 악한 환경 앞에서도 은혜로운 것을 선택하여 꺼내어 놓는 성품의 힘이며,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침반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마음의 경향성입니다. 날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항상 좋은 것을 꺼내어 놓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울기가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확고히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